

“5·18 암매장 발굴 계속…진실규명 총력”

기념재단 올해 주요사업 설명회…국제연대 등 4개 분야

5월정신 아시아인권헌장 담고 헌틀리 목사 광주 안장 추진

5·18기념재단이 올해 주요사업 방향을 ‘진상 규명’으로 정하고 암매장 발굴, 계엄 군 증언 확보에 힘을 쏟는다. 또 5·18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고(故) 찰스 헌틀리(한국명 허철선) 선교사의 광주 안장도 지원한다.

25일 5·18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재단 내 문화사랑방에서 2018년도 사업설명회를 열고 ‘진실규명’ ‘국제연대’ ‘교육문화’ ‘기념사업 지원’ 등 4개 분야 사업을 발표했다.

‘진실규명’ 부문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주시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부지 등 암매장 발굴조사를 연중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의 증언도 확보할 계획이다.

재단은 구체적 장소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파트 공사장에서 교련복을 입은 사진을 봤다는 증언이 접수되는 등 암매장 관련 각종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5·18 진상규명의 계기가 됐던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 3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도 오는 3월 국회에서 열린다. 당시 기록, 영상, 사진 등의 아카이브 작업도 병행한다.

올해 10월에는 미국 UCLA대학교 한국학센터와 연계해 국제 학술대회를 연다. 재단은 지난해 이 학교 도서관에서 5·18관련 자료 6300건을 확보, 번역 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5·18진상규명특별법’ 통과에 대비한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도 꾸준히 운영한다. 올 3월까지 10개 이슈를 선정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제연대’ 부문에서는 아시아인권헌장

광주선언 20주년 기념행사(5월16~17일)가 눈에 띈다. 20주년을 맞아 5·18 정신이 포함된 보호헌장을 선포해 5·18을 세계화한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독일 등 6개 나라 순회 5·18국제사진전 ‘위대한 유산’,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열리는 UN ‘세계 실종자의 날’ 아시아지역 행사, 아시아 풀뿌리 민주주의단체 지원 사업을 펼쳐나간다.

올해 5월18일 광주인권상 시상식에는 헌틀리 목사, 아놀드 피터슨 목사 유가족

등 5·18 공로자를 초청한다.

5·18재단은 시상식을 계기로 헌틀리 목사의 유해 일부가 광주시 남구 양림동 선교사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교육문화사업 부문에서는 5·18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정규 교과과정에 담기 위한 5·18교육정책연구, 5·18중등교과서·전시용 교육자료 2종 개발·보급, 5월 문화예술사업 등을 추진한다.

기념사업지원 분야에서는 ‘오월결상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이 프로젝트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열사들이 희생되거나 헌신했던 자리에 결상 모습을 한 기념 조형물을 설치해 열사들을 기린다.

1986년 5·18 진상 규명을 외치며 강상철 열사가 분신했던 목포역광장에 오는 2월 중 2호가 조성될 예정이다. 1호는 1987년 전두환 정권 퇴진과 민주 헌법 정취를 요구하며 황보영국 열사가 분신했던 부산시 서면에 세워져 있다.

재단은 ‘오월 결상’ 추가 설치 장소로 서울한국가독교회관, 경찰청인권센터(옛 남영동보안본실), 옛 남산 중앙정보부 6국 등을 선정했다.

또 5·18연문상, 장학사업을 비롯해 5·18 40주년을 대비한 태스크포스(TF) 운영, 재단의 안정적 운영 방안도 연구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6
해질 17:54

달출 12:57
달짐 01:43

추위 절정

대부분 지역 한파주의보 발효된 가운데 바람 강해 더 춥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0/-4	보성	맑음	-10/-4
목포	맑음	-8/-4	순천	맑음	-10/-2
여수	맑음	-9/-2	영광	맑음	-11/-6
나주	맑음	-9/-4	진도	구름 많음	-6/-3
완도	맑음	-6/-3	전주	맑음	-13/-5
구례	맑음	-12/-4	군산	맑음	-12/-6
강진	맑음	-7/-4	남원	맑음	-13/-5
해남	맑음	-8/-4	흑산도	구름 많음	-5/-2
장성	맑음	-11/-5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서~북 2.0~4.0	북서~북 1.5~3.0
남해 앞바다	북서~북 3.0~5.0	북서~북 2.0~4.0
남해 서해 앞바다(동)	북서~북 1.5~2.5	북서~북 1.0~2.0
남해 서해 앞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2.0~4.0
남해 서해 앞바다(남)	북서~북 3.0~5.0	북서~북 2.0~4.0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1:22 14:04	08:42 20:55
여수	09:40 22:28	03:44 15:58

◇주간 날씨

27(토)	28(일)	29(월)	30(화)	31(수)	2/1(목)	2(금)
-9/3	-5/2	-5/2	-4/4	-4/2	-3/4	-3/4

◇생활지수

	매우높음
	높음
	매우높음
	감기
	중음
	미세먼지

‘세월호’ 세워 미수습자 찾는다

업체 현대삼호중 선정…내달 시작 6월 중순 마무리

목포신항에 옆으로 누워 있는 세월호를 해상크레인을 이용해 바로 세운다.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직립(直立) 작업 중에도 세월호 내부에 ‘안전통로’를 만들어 미수습자 수색을 이어간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는 지난 24일 1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선체 직립 업체로 현대삼호중공업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비는 176억 원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현재 세월호 왼쪽 면에 육상 거치를 위해 설치된 철제 빔

빔을 설치한 뒤 빔에 해상크레인을 걸어 세월호를 바로 세울 계획이다. 다음달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 6월 14일 안에 직립을 마친다.

현재 선체가 기울어 진입 시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된 타기설 등 기관구역으로 통하는 ‘안전통로’를 만들어 수색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고 정밀조사를 병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세월호를 인양해 기존 미수습자 9명 가운데 4명의 유해를 일부 수습했다. 그러나 수색이 중단된 작년 말까지 5명의 흔적은 찾지 못한 상태다. /김한영기자 young@

광주디자인센터 계약직 ‘정규직 배제·해고’ 반발

“근무평가 절차 졸속” 3명 이의신청…다음주 평가소위

광주디자인센터에서 일한 계약직 직원들이 부당한 근무성적 평가로 정규직 채용에서 배제되고 해고를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 노동계에서는 이런 조치가 지난해 정부의 저성장과에 대한 ‘쉬운 해고’ 지침 폐기에 반발 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광주디자인센터에서 지난해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A씨 등 3명은 “지난 3일 계약 만료 하루 전에 센터로부

터 소명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곳을 평생 직장이라 여기고 1년간 성심껏 일했는데 근무성적 평가 결과도 모른 채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하소연했다.

광주디자인센터는 지난해 1월 5일 A씨 등 5명과 1년 기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전시와 홍보, 행사, 마케팅 분야에서 일할 영어(3명)와 중국어(1명), 일본어(1명) 특기자로 채용된 이들 계약직 직원들은 근무성적 평가를 거친 후 정규직

근로자 전환을 위해 마련된 고용형태였고 A씨 등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다. 하지만 A씨 등 3명은 계약 만료됐고 2명은 정규직 채용을 통과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 기준이 된 근무성적 평가에 대해서도 “중간 관리자들의 농단으로 자의적 평가가 이뤄졌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센터에 이의신청을 내놓은 상태. 이들은 평가 절차도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센터는 당초 직원 정기 근무성적 평가계획에 따라 1차 평가자(담당 부서 팀장)와 2차 평정 확인자는 성적 평가 직전 피평가자들과 면담을 실시한 후 점수

를 매기도록 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피평가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점수를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도 않은 타부서 팀장 2명이 각각 20%씩 주도록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광주디자인센터는 A씨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토대로 평가소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평가소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광주디자인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번 비정규직 계약 만료 조치는 채용과 평가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이에 대한 절차가 진행될 만큼 평가소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방화사건 피해 세모녀 빈소 장흥에 마련

서울장여관 방화사건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장흥 세 모녀(광주일보 1월 22일자 6면)의 빈소가 장흥에 마련된다.

25일 장흥군 등에 따르면 어머니 박모(여·34)와 두 딸(14·11세)의 신원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오는 27일 오전 유해가 장흥으로 운구된다. 빈소는 같은날 장흥 중앙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해화경찰은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으로부터 DNA 검사 결과 방화

현장에서 수습한 시신의 신원이 세 모녀 신원과 일치한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시신은 훼손 정도가 심해 신원확인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화 피의자 유씨는 이날 오전 검찰로 송치됐다. 유씨는 “왜 불을 질렀느냐”, “피해자에게 한마디 해달라” 등 취해진 물음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유씨가 낸 불로 세 모녀를 포함해 6명이 죽고 4명이 다쳤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대한보청기
www.maxo.co.kr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3-GN1-10-0067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또는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가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되, 말소(어음)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인식 · 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소 보청기의 기술 · 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소 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소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소 '프로'

맥소 '스텝'

맥소 '크리스프'

맥소 '스큐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 · 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 · 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소를 시험관장에 드리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책자 무료 발송

보청기의 종류·가격·시험테스트
상담·검사·구입·무이자할부 등 안내

RIE(8-16세별) 고급제품 대할인 특별행사!! 보조금으로 고급제품 무료구입!! (청각장애등급2-6급 소지자)

335일 전국, 천사 무료 방문 서비스!!

광주·전남 본점 0621430-8900

전북·전주 본점 0631251-4999

◆장안본사 02)2248-5600 ◆충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